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에 대한 연구 1961년 『국제신보』 돕기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chae@pusan.ac.kr

이 논문은 1961년 4월 부산의 『국제신보』가 누적된 경영난으로 용지를 조달하지 못해 신문을 휴간하는 사태에 이르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문 돕기 운동을 전개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당시 이 운동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6일간에 걸쳐 독자들의 성금과 격려 편지, 격려 방문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참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성금을 보낸 89건의 사례들 중 48.3%가 일반 시민이었고 사회단체가 7.9%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 운동이 일반 시민들 다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전개된 운동이었음을 말해 준다.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운동은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을 지지, 후원한 수용자운동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해방 이후 수용자운동의 역사를 논할 때 대부분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평가하였지만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이보다 3년 앞서 부산에서 벌어진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언론사 • 수용자운동 • 부산 • 국제신보 • 지역 언론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해방 이후 수용자운동의 기원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닌다. 그동안 학계의 논의에서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에 관해서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최초의 사례로 꼽아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만을 보더라도 이보다 앞선 1961년 부산에서 벌어진 『국제신보』(현재의 『국제신문』) 돕기 운동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학계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국면 속에서 시민사회의 언론운동이 조직화,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시작되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을 해방 이후 수용자운동의 기원으로 보는 논의는 김기태로부터 시작되었다. 김기태는 개화기와 일제기 언론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수용자들이 반응을 보인 사례들도 언론 수용자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분석에서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부터 대상으로 하였다. 이 반대 운동에 대해서 김기태(1989, 60~61쪽)는 언론계 스스로가 중심이 되기는 하였지만 “언론계 밖의 단체나 기관들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통제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수용, 계승되었다. 한국언론연구원(1994)이 펴낸 ‘언론 수용자운동 일지’에서도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임영호(1995, 237~238쪽)도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성격과 현황을 논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언론문제에 관해 사회집단적인 차원에서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논

의하였다. 양승목(1995, 134쪽)도 언론시민운동을 논하면서 언론윤리 위원회법 파동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는 언론 수용자운동의 사례로 거론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채백(1998, 2002, 2003, 2005a)은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을 개화기와 일제기까지 확대시켜 논의하였지만 해방 이후의 수용자운동(2005b)에 대해서는 역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기원으로 잡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 언론 수용자운동 역사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보다 3년 앞서 부산에서 전개된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경영난 속에 『국제신보』가 1961년 4월에 마침내 용지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휴간해야만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언론에 편지와 방문을 통해 격려하고 성금을 보내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신보』는 금방 속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사례를 분석하여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신문사가 발간한 사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사사를 통해 국제신문사(1997, 147쪽)는 1961년 4월 26일 조간 1면에 사고를 통해 경영난 끝에 휴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고를 게재해야만 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고의 내용에 이어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국제신보의 이런 사고가 나가자 독자들의 격려편지와 격려 금품이 답지했고, 4월 28일부터 조석간을 정상 발행하게 됐다. 또 속간을 축하하려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국제신보를 방문했다”라고 서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보다 먼저 이루어진 『국제신보』 돕기 운동의 사례를 언론 수용자운동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해방 이후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으로 평가해 보려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대,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 수용자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문제될 것이다. 김기태(1994, 134쪽)는 언론 수용자운동을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중매체가 인간에 미치는 각종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한 후 이를 능동적으로 선택, 수용함은 물론 나아가서 대중매체의 구조와 내용을 수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 집단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토대로 하여 채백(2005b, 15쪽)은 언론 수용자운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첫째는 언론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바탕이 된다는 점이며, 이어서 언론의 구조나 내용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수용자 개인의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면서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2. 국제신보 돕기 운동의 배경

1) 부산 언론계의 상황

(1) 한국전쟁기의 부산 언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당시 언론계, 특히 부산의 언론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기 수도가 임시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서울의 언론사들도 대부분 부산으로 이전하여 전시판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부산은 한국 언론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부산의 언론들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부산의 언론 중에서는 『국제신보』가 급성장하였다. 『부산일보』는 1951년 연초 미군에 의해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의 발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옥과 인쇄 시설을 강제로 징수당해야 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사장 김지태가 이른바 조선방직 낙면(落綿)사건¹에 휘말려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부산일보사』, 1985,

295~300쪽).

반면 『산업신문』에서 1950년 8월 19일 제호를 바꾼 『국제신보』²는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면서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국제신보』는 외국의 여러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 전쟁기 제한된 정보 여건 속에서 외신 부문에서 앞서 나갔다. 1951년 7월 19일에는 대만의 중앙통신 및 미국 뉴욕에 있는 NANA(North American Newspapers Alliance)의 두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51년 7월 29일에는 마닐라와 동경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의 통신사 PANA통신(汎亞通信)과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1951년 9월 9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통신사 AFP와 1952년 5월 26일에는 영국의 대표적 통신사인 로이터와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53년 3월 18일에는 세계통신이라는 명칭의 통신사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국제신보』는 급성장하여 당시 다른 매체들보다 앞서가는 지위에 이르면서(『국제신문사』, 1997, 86~87쪽) 부산의 대표적 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부산의 언론들과 부산 역전 대화재

휴전 이후 수도와 서울의 언론사들은 모두 돌아가고 부산에는 원래부터

1 이 사건은 『부산일보』의 사장 김지태가 이사로서 사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조선방직이 군납 물품에서 순면만 사용해야 하는데 재생면 5%를 섞어 군납 복지의 질을 저하시켜 군 작전에 차질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어진 것이다. 1951년 3월 조선방직 간부 20명을 포함한 관계자 50여 명이 구속되었다. 김지태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불구속 입건되었다. 1951년 8월 28일 1심 재판에서 김지태 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동아일보』 1951. 8. 30. 2면) 그해 12월에는 대구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김지태가 당시 국회에서 정부 비판에 앞장서던 소장파 의원 그룹 민우회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부산일보사』, 1996, 567~570쪽).

2 당시 제호를 바꾸게 된 것은 전시 하에 특수지의 허가는 취소한다는 경남계엄사령부의 포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신문』은 경남계엄사령부와 협의하여 제호를 바꾸면서 경제지의 성격을 벗고 종합일간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국제신문』이라 하지 않고 『국제신보』라 했던 것은 서울에서 발행된 적이 있던 『국제신문』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국제신문사』, 1997, 72쪽).

부산에서 발행되던 신문들만 남게 되었다. 즉 『민주신보』와 『부산일보』, 『국제신보』, 『자유민보』의 4개 신문만 남았다.

휴전 이후 4달 뒤인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 앞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당시 부산 역전 주변에 있던 언론사들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자유민보』와 『민주신보』, 『부산일보』 그리고 부산방송국의 사옥이 전소되었으며 이외에도 합동통신과 동양통신, 경제통신의 부산 지사 사옥들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다(『조선일보』, 1953. 12. 1. 2면). 언론사 중에는 당시 남포동에 사옥이 있던 『국제신보』만이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도 『국제신보』가 1950년대 전반기 굴곡 없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3) 1950년대 『국제신보』의 변화와 경영난

① 서울 진출 시도와 세계통신 재창간

한국전쟁 기간 중 급성장한 『국제신보』는 휴전 이후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국제신보』는 1953년 3월부터 창간, 운영하던 세계통신사를 같은 해 9월 13일부터 서울로 옮겨 재창간하고는 이어 『국제신보』의 전국지화를 시도하였다. 당시 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형두는 “피난 중에 국제신보의 애독자였다가 서울로 환도한 사람들을 서울판 국제신보의 애독자로 연장해 받아들이면 우리 국제가 그야말로 중앙지로 발판을 굳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 서울에서 발행되던 『태양신문』이 경영난 끝에 매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이의 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태양신문』은 장기영이 인수하였다(김형두, 1995, 159쪽). 장기영은 이를 인수하여 『한국일보』라고 제호를 바꾸어 1954년 6월 9일에 창간하여(한국신문연구소, 1975, 515쪽)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양신문』의 인수에 실패한 국제신보사는 다시 공보처에 『국제신보』의 서울 발간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공보처가 허가해 주지 않

음으로써 서울에서 발간하여 전국지화하려는 시도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김형두, 1995, 159쪽).

② 편집과 운영의 변화

이 시기 『국제신보』는 편집과 운영 면에서도 혁신을 시도하였다. 1953년 10월부터는 활자를 새로이 바꾸면서 지면을 일신하였다. 이어 1954년 10월부터는 당시 하루 2면을 발행하던 체제에서 일요판을 배판 4면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5월부터는 배대판 발행을 시작하여 격일제로 발행하다가 10월 23일부터는 매일 배대판 발행을 정착시켰다(『국제신문사』, 1997, 103~104쪽). 『국제신보』는 1955년부터 기자 공채를 실시해 그해 3월 2일에는 4명의 수습 기사를 채용하였다. 이어 1958년에도 기자 공채를 실시하여 11월 4일에 19명의 기사를 채용하였다(『국제신문사』, 1997, 691~694쪽).

1957년 창간 10주년을 맞은 『국제신보』는 9월 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을 책임져 왔던 김형두가 사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 사장을 맡아 왔던 이연재는 회장에 취임하였다.

김형두가 사장에 취임한 이후인 1958년 9월 26에는 조간 2면 석간 4면의 조석간발행 체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국제신보』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울의 신문들이 모두 조석간발행하는 가운데 경쟁지인 『부산일보』도 조석간 발행제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국제신보』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국제신문사』, 1997, 122~125쪽). 이어 1959년 1월 1일부터는 조석간 8면으로 다시 증면하였다(『국제신보』, 1958. 12. 24.). 1959년 6월 14일부터는 『소년국제』를 타블로이드 4면으로 발행하여 매주 일요일자 조간과 함께 배달하였다. 또한 1959년 7월 8일에는 시내 대교로 2가 69번지에 새로운 사옥을 완공하여 입주하였다(『국제신문사』, 1997, 128쪽).

③ 『부산일보』와의 경쟁 그리고 소송

1950년대부터 『부산일보』와 『국제신보』는 부산의 언론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구축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 신문의 관계는 『부산일보』가 먼저 창간되고 『국제신보』는 1년 늦게 창간한 후발 주자였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일보』가 적산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시설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한국전쟁기에 이 적산이 문제가 됨으로써 굴절을 겪는 사이 후발 주자 『국제신보』가 기반을 구축하면서 따라잡게 된 것이다. 이후 『부산일보』가 김지태의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만회하려고 경쟁을 선도하고 『국제신보』는 이를 방어하면서 양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자본력이 취약했던 『국제신보』로서는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두 신문의 경쟁 관계가 급기야 1959년경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1959년 8월 19일자 석간 3면에 1단 기사로 짤막하게 보도하였다. “소 취하로 일단락/부산 두 신문의 분쟁”라는 제목의 이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씨와 국제신보 사장 김형두씨 간에 전개된 주권(株權) 확인 청구의 민사와 배임 등 형사 사건은 고소인 김 씨로부터 18일 하오 3시 법정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 취하함으로써 부산일보사와 국제신보사와의 경쟁은 중지부를 찍었다.

두 신문사 간에 주식 소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갔다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김형두의 자서전(1995, 181~185쪽)에 소개되고 있다. 김형두에 의하면 당시 부산일보사의 김지태가 『국제신보』의 주식을 은밀하게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격적 인수 합병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신보』 측에서 주권을 팔기로 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만큼의 돈을 주고 주권을 물러 받는 방법으로 방어를 나섰다. 그러나 『부산일보』 측에서 이 건을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것이다. 고소의 내용은 『국제신보』의 대표이사가 남의 주권을 횡령하였으며 회사 경영에서 불법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두 신문이 부산의 언론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구축하면서 경쟁을 벌여 나가던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법정에게까지 갔으나 소 취하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두 신문의 경쟁 관계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했던 『국제신보』로서는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었다. 전술한 대로 조석간체제의 도입도 당시 『국제신보』로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쟁지 『부산일보』가 도입한다고 하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경영 압박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④ 몇 가지 사건과 경영난

이 시기 『국제신보』는 몇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가장 먼저는 1954년 1월 24일 2면에 일본 상품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5단통으로 게재된 이 광고는 ‘세계 수준을 능가하는 인견사계의 패왕’이라는 헤드 카피와 ‘세계 수준을 능가한다거나 ‘한국이 제일 환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 섬유계의 세 회사를 광고하였다. 이 광고에 대해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언론 전문지 『비판신문』이 2월 8일자 지면을 통해 “일제경제의 재침략성을 선도”라는 강한 비판적 톤의 제목과 함께 원색적인 언어로 비판하였다 (『한국언론연표』, 1954. 1. 21³에서 재인용).

오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당시 사회의 반일감정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제신보』가 광고란에 일본 상품의 광고를 게재하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며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1959년에는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1958년부터 『국제신보』는 시민위안 행사를 주최하였다. 1959년 7월 17일에는 제2회 시민위안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던 중 오후 8시가 지

3 『한국언론연표』는 『비판신문』 기사에 의거하여 『국제신보』에 일본 광고가 실린 것이 1954년 1월 21일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지면을 보면 1월 24일자에 실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이 비를 피하려고 군중들이 한꺼번에 물리면서 대참사가 빚어졌다. 그 다음날까지 48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였다(『동아일보』, 1959. 7. 18. 3면).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67명에 이르렀다.

이 대참사로 『국제신보』는 엄청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사고 다음날인 7월 18일자 1면에 ‘근고(謹告)’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시민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쳤다고 한다. 경찰도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마침내 국회에까지 비화되어 특별조사단이 구성될 정도였다(김형두, 1995, 194쪽). 이와 함께 각계의 조의금도 답지하여 9월 3일까지 계속된 성금 모금액이 1001만 2877환에 이르렀다고 한다(『국제신문사』, 1997, 133쪽). 『국제신문사』는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장이었던 구덕운동장 한편에 위령탑을 세웠다(『국제신보』, 1963. 9. 2. 3면).

뒤이어 같은 해 9월 『국제신보』는 태풍 사라호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말았다. 9월 16일 밤부터 몰아친 이 태풍에 의해 『국제신보』는 송도 해안의 남향 방파제 근처에 있던 용지 창고가 침수되어 50여 톤의 용지를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다(『국제신문사』, 1997, 565쪽).

당시의 신문 용지난은 언론계가 안고 있던 보편적인 문제였다. 제지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신문들은 경쟁 관계 속에 증면하고 조석간 체제에 돌입하는 등 만성적인 용지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1958년경 신문산업의 용지 자급율은 3%가 채 못 될 정도였다고 한다(주동황 외, 1997, 63쪽).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지 창고가 침수당하고 50여 톤의 용지를 잃은 것은 막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국제신보』는 9월 18일 조간을 2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국제신문사』, 1997, 565쪽).

이처럼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겹치면서 『국제신보』의 경영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경영난 끝에 1961년 신문이 발행되지 못하고 휴간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산의 신문 중에서도 후발 주자로 출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집 면의 혁신을 시도하면서 한국전쟁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부산의 대표적 신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국 지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던 『국제신보』가 경영난으로 휴간할 지경에 이르자 독자들이 나서서 돕기 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3. 『국제신보』의 휴간과 독자들의 대응

1) 휴간의 경위

『국제신보』의 경영난은 4·19 혁명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 당시 사장이던 김형두(1995, 234~235쪽)는 당시의 경영난이 최악의 상태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문의 숫자는 늘어 신문 용지 품귀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가격도 폭등하니 신문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난 속에 급기야 『국제신보』는 신문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는 휴간 사태를 맞고야 말았다. 1961년 4월 24일자 신문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용지가 떨어져 일부 지역에 신문이 배달되지 못했고, 4월 25일자 조석간은 전혀 인쇄를 시도도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제신보』는 1961년 4월 26일자 1면 좌측 상단에 “삼가 사과를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박스 기사로 독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경위를 해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애독자 여러분! 지금 이 난을 통해서 이러한 글월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정황에 이르르고 보니 북바쳐 오르는 설움을 억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라도 애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감정을 금할 길 없어 거리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심정이옵니다.

24일자 석간을 인쇄하는 도중 종이가 떨어져 일부 지역분을 배달하지 못했고 25일자 조석간은 전면 인쇄에 착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기

사를 쓰고 식자공은 식자 조판을 완료하고 운전부에서는 지형까지 다 만들어 놓고 종이가 없어서 운전기를 돌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내의 정상(情狀)이란 흡사 당상(當喪)한 집을 연상케 하는 처량한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오직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중삼중의 비애와 죄스러움으로 착잡한 심상(心象)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애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소위 독자의 눈과 귀 그리고 이성으로서 자처하는 언론의 기관이 이처럼 무성의해해야 될 말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무성의를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종업원 일동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한 사실만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자의 경륜의 부족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궁지에 휘몰리게 된 객관적 조건은 정신력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작년 7월 '운동장 사건'에 뒤이어 사라호 태풍이 용지 창고를 휩쓸어 갔을 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작년 12월경만 해도 톤 당 21만 환하던 용지가 현재에 와서 30만 환으로 급등하고 보니 자체의 수지로서 겨우 운영해오던 본보는 이에 결정적 타격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톤 당 21만 환을 할 때도 지대 수입으로선 원료대와 인건비 기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톤 당 9만 환 이상의 가격이 올랐으니 1개월분 용지량 100톤으로 보고 1개월 900만 환 상당의 적자를 가산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의 누적이 오늘의 비운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략)

애독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이 간난을 조국이 봉착한 간난으로 알고 견딜 각오입니다. 모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들만이 예외일 수 있을까 하고 악음을 가다듬을 작정입니다. 어떠한 난관 어떠한 악조건을 극복하고서라도 여러분이 키워주신 국제신보를 연이어 속간할 심산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흡한 점 불비한 점이 있을지라도 해방 후 이날까지 15년 동안을 같이 애환을 나눈 우리 신문을 버리지 마옵소서. 보통 상품에 대한 일반의 고객처럼 대하실 것이 아니라 국제를 통한 민족의 언론을 격랑에 번관(翻關)되는 일엽편주를 보듯 안타까이 여기시옵고 따뜻한 격려 계시옵기 절망(切望)하옵니다. 앞으로 어떤 고비가 있을 때라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애호만을 믿고 우리 국제신보 종업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의 죄과 깊이 사과 올리며 아울러 깊은 이해 계시기 바랍니다.

이 난을 통해서 비통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한 『국제신보』는 1959년의 구덕운동장 사고와 사라호 태풍의 피해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960년도까지 톤 당 21만 환하던 신문용지가 당시는 30만 환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매월 900만 환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된 상황 때문에 휴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국제신보』는 4월 26일에도 석간을 인쇄하지 못했으며 27일의 조건도 쉬고 27일 석간부터 속간할 수 있게 되었다(『국제신보』, 1963. 9. 3. 7면).

이때 속간할 수 있었던 것은 후술할 독자들의 의연금도 적지 않게 보탬이 되었겠지만 『한국일보』 발행인이던 장기영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1960년 8. 13 재선거를 통해 참의원에 당선된 『국제신보』 사장 김형두(『경향신문』, 1960. 8. 15. 1면)는 당시 주로 서울에 머물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국제신보』가 어려움을 겪던 중에 장기영이 김형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신문용지 20톤을 결재해 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용지 공급 대금을 제지업자에서 그 자리에서 수표로 결재해 주었다는 것이다(김형두, 1995, 240~243쪽).

장기영의 이러한 도움은 『국제신보』가 속간하여 정상 발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시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동업자 장기영이 이처럼 경영난에 처한 『국제신보』에 무조건적인 도움을 준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그 다음날인 4월 27일자 속간호인 석간 제1면에서는 “삼가 아

됩니다”라는 종업원 일동의 메시지를 게재하여 독자들의 성원을 호소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애독자 여러분께 삼가 아뢰웁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신문이 연속된 타격으로 인해서 부득이 며칠 동안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업원 일동의 슬픔과 고민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고 보다는 애독자 여러분을 배신한 것 같은 죄스러운 심정 때문에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업원 일동이 보급소와 기자 공장노무자 일치단결해서 살을 깎고 뼈를 에이는 노력으로 다시 『국제신보』를 속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잘 것 없는 신문이기는 하지만 막상 없어지고 보니 거리는 허전하고 한꺼번에 눈과 귀를 잃은 것 같더라는 애독자의 격려와 기대에 보답하고자 굶주린 창자를 쥐고라도 최선을 다할 각오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위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던 투혼을 거듭 강화시켜 언론의 진정한 사명을 다할 작정입니다.

신문이라고 해서 모두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정부의 시책이 민심을 잃고 국제정세가 단단해지면 백성을 그릇 지도하는 사이비 언론이 팽창하는 법이며 그 피해가 민족영년의 대계를 망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각하고 우리 『국제신보』는 언제나 민족의 정론을 고집하고 끝끝내 투쟁할 것이며 언제나 짓밟히는 국민의 권익을 옹호할 것이며 쇠잔한 서민들과 더불어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 신문의 가난함이 곧 겨레의 가난함이며 이 신문의 수난이 곧 겨레의 수난임을 이해하시고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를 거듭 바라는 바입니다. 『국제신보』는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국제신보』를 잊지 마옵시고 곤란할수록 안타까이 여기시는 여러분의 애정 있기를 눈물로써 호소하웁니다.

비장하고 애절한 어조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신문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아울러 독자들의 성원을 호소하

고 있다. 이러한 눈물어린 호소가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면서 『국제신보』 돕기 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독자들의 격려 운동의 전개

『국제신보』가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이를 절절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성원을 호소하자 독자들이 나서면서 신문을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크게 나누어 의연금과 격려 편지, 방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연금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문건이 실린 속간호 4월 27일자 석간 제1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호소문 바로 옆에 “본보속간격려금”이라는 2단 크기의 제목과 함께 부민동에 사는 이권기(李權基)라는 사람이 일금 2만 원을 보냈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 전날 지면에 실린 사과문을 보고 안타까이 여긴 독자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보』 사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사례를 보고 고무되어 바로 이 날짜 지면에 독자들의 성원과 애정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가 계기가 되어 뒤를 이어 『국제신보』를 돕기 위한 독자들의 격려 편지와 함께 성금이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다음날인 4월 28일자 1면에는 다시 종업원 일동의 인사말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인사말은 “애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애호가 있기에 신문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 3일 동안은 휴간하고 오늘 겨우 속간하게 이르는 이 순간처럼 여러분의 돈독한 애정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격려의 편지와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온 금품 등을 앞에 놓고 우리 종업원 일동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어려운 고비를 박차고라도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해야겠다고

맹세를 나눴읍니다”라고 벽찬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인사말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 독자들의 격려 편지와 성금이 답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날짜 지면에도 1면 우측 하단에 전날과 같은 “본보속간격려금”이라는 제목으로 작게는 500환부터 많게는 2만 환까지 격려금을 보내준 세 사람과 함께 제과점으로 보이는 ‘부산뉴욕’에서 양과자 7몽치를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말미에는 누계 4만 1,500환과 양과자 7몽치라는 집계도 기록하였다.

그 다음부터 날마다 신문의 1면, 나중에는 3면으로 옮겨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성금 내역을 게재하였다. 주로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계층을 초월하여 의연금에 참여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 지사를 통해서도 성금이 접수되었다.

시민들의 『국제신보』 돕기 모금 운동은 5월 들어서도 계속 되었다. 당시 의연금 내역은 『국제신보』 1961년 5월 2일자 지면에까지 소개되었다. 이때 지면에 소개된 의연금 모금 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신보』를 돕기 위한 성금은 5월 2일자까지 지면에 소개되고 있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 89건 금액으로는 총 79만 700환의 성금과 술, 과자, 멸치 등 격려품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서울 지사를 통해 접수된 일본 동화신문사와 애경유지 그리고 동광약품과 흥안제약 등 4건이 접수되었다.

성금 79만700환은 신문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큰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술한 대로 당시 신문 용지 가격이 톤당 30만 환이었으니 용지 2.6톤가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경영난을 겪는 신문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서 현장 언론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제신보 지면에 소개된 일자별 성금 내역

날짜	성명	주소/단체명	금액(환)	소계(환)
4.27	李權基	부민동3가24	20,000	20,000
4.28. 조간	무명씨 崔祐順 韓炳烈 부산뉴욕	- 동대신동 동대신동 -	500 1,000 20,000 양과자7몽치	21,500 양과자 7몽치
4.28. 석간	金得萬 柳武相 - 李鍾湖 李淳英 徐桂香 襄素英 襄大錫 金成和 한애독자 - 馬宰史 -	중구부평동2가46 중구남포동2가 청탐주인 국제화학주식회사 동래구재송동 보수국민학교 진구 부전동 진구 부전동 진구 부전동 서구 서대신동 - 부림다방 일본 동화신문사장* 부산지방검찰청	100,000 10,000 30,000 1,000 5,000 3,000 2,000 2,000 5,000 1,000 2,000 50,000 20,000	231,000
4.29. 조간	李興馥 崔南壽 成元慶 李淳玉 金善在 - - - - -	중구 중앙동1923 진해시 광화동 동구 초량동 남일의원 광복동 1가34 여명 영도구 봉래동 경남경찰국 부산기독교방송국 부산부두노동조합 은행노동조합회부산협의회 제7병참피복창장교단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	50,000 2,000 3,000 5,000 별치1袋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50,000 별치1袋
4.29. 석간	金石用 李學洙 李相連 金世尊 黃仲律 - 李甲道 李允洛 李揆英 - 朴根壽 - 林錫圭 -	마산시 거주 산청군 신안면 시내 서면 거주 - 부산 司稅廳長 국제시장상층4공구B동조합원일동 부산여고 교장 전국군기술노동조합 위원장 비타이스트본포동광약품연구소대표* 부산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장 국제신보거제지국 배달부일동 중구광복동1가15 경문서림 대표 부산세관 부산제빙냉동조합	2,000 3,000 1,000 10,000 10,000 50,000 10,000 2,000 10,000 20,000 10,000 11,100 10,000 20,000 20,000	212,100

날짜	성명	주소/단체명	금액(환)	소개(환)
	崔努步	부산 부전동	2,000	
	鄭永秀	시의원	1,000	
	梁命煥	시의원	1,000	
	金尙贊	시의원	1,000	
	郭重坤	시의원	1,000	
	金子逸	시의원	1,000	
	朴料浩	시의원	1,000	
	徐成俊	시의원	1,000	
	張潤範	시의원	1,000	
	李學相	시의원	1,000	
	金東振	시의원	1,000	
	鄭鳳鎬	시의원	1,000	
	李康龍	시의원	1,000	
	安承益	시의원	1,000	
	金相佑	시의원	1,000	
	李景雨	시의원	1,000	
	李秀英	시의원	1,000	
	鄭鎮珪	시의원	1,000	
	李鍾榮	시의원	1,000	
	朴永勗	시의원	1,000	
	金潤業	시의원	1,000	
	金필珉	시의원	1,000	
4.30. 조건	-	남부산세무서장	청주1말, 화분1개	
	姜義斗	동방생명보험 경남지사장	5,000	25,000
	安虎弼	부산지방해무청장	10,000	청주2말
	-	경남야구협회	10,000	화분1개
	-	경남극장협회	청주1말	
5.1. 석간	-	서구동대신동 서부극장 직원일동	2,000	
	金載生	재일본한국학도의용군부산지구본부대장	3,000	
	安成達	대선조선철공소	10,000	37,600
	金元鎭	부전동로타리 장생당한의원	2,000	
	車米市	동아대 영문과1년	600	
	홍찬기	김은머리분포 흥안제약사장*	10,000	
	朴현洙	군수기자사령관	10,000	
5.2. 조건	朴泰鏞	중구부평동1가35	10,000	
	李在義	부산진2층 화신상회	1,000	
	-	법일동 성금사 문방구점원일동	500	
	李海道	대신중 교장	20,000	
	李鍾沂	부산공작장노동조합위원장	10,000	
	咸聖用	외자청 부산사무소장	10,000	
	원명호	법천2동 철도관사1호	1,000	
	-	부산지역출판노동조합	1,000	
	-	남전부산지점	탁주1말 20,000	
	-	선박통신사노조	3,000	
	-	통영국민학교31회 竹組재부동창생일동	17,000	93,500 탁주1말

* 표시는 서울 지사 접수분

표 2. 성금 출연자의 직업별 분포

날짜별	시민	사회단체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계
4.27석간	1	-	-	-	-	-	1
4.28조간	4	-	-	-	-	-	4
4.28석간	10	-	1	1	-	1	13
4.29조간	5	2	1	2	-	1	11
4.29석간	11	1	2	2	21	-	37
4.30조간	-	2	1	2	-	-	5
5.1 석간	5	-	1	1	-	-	7
5.2 조간	7	2	1	1	-	-	11
합계 (비율)	43 (48.3)	7 (7.9)	7 (7.9)	9 (10.1)	21 (23.6)	2 (0.2)	89 (100.0)

당시 『국제신보』 돕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국제신보』 지면에 소개된 성금 내역을 토대로 하여 성금 출연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소속이나 직책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고 주소만 표시되거나 혹은 소속이 표기되었어도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빵집이나 다방 주인, 한의원, 학교 교장 등은 일반 시민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단체는 단체장 등의 인명 표기 없이 단체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공무원에는 군인이나 검찰직도 포함시켰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이 43명으로 가장 많아서 전체의 48.3%를 차지하였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부민동에 사는 이권기라는 시민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4월 30일 조간만 제외하고는 매번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되었다. 이외에 사회단체도 7건으로 7.9%를 차지하였다. 이 사회단체에는 부두노조나 출판노조, 선박통신사노조 등 노동조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신문사 돕기에 참여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로써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시민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로서는 경남의 초중등교원노조는 4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3000여 명의 노조원들 1인당 1000환씩의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하였다(『경향신문』, 1961. 4. 29. 조간 3면). 이 결의대로 실행되었다면 『국제신보』에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 뒤의 『국제신보』 지면에 나온 성금 출연자 소개에도 교원노조가 성금을 냈다는 기록은 없다. 이는 교원노조의 이사회 결의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경남교원노조 위원장 이종석을 회비 횡령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1961. 4. 29. 조간 3면).

다음으로는 정치인들이 21명으로서 23.6%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4월 29일에 부산 시의원 21명이 각 1,000환씩 함께 기탁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 시의원은 1960년 12월에 선거를 치르고 1961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는데, 모두 29명이었다(『동아일보』, 1960. 12. 21. 석간 1면). 전체 시의원 중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 모두가 『국제신보』 돕기에 참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무원과 기업인이 각기 9건(10.1%)과 7건(7.9%)을 차지하였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공무원 등은 업무상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큰 직종이기에 이들의 성금도 이러한 직업적 특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격려 편지와 전문

의연금 외에 격려 편지도 다수가 신문사로 전달되었다. 그중 일부는 성금도 함께 전달한 사례들도 있었다. 격려 편지가 전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중 일부는 『국제신보』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속간호인 4월 27일자 석간 3면 사회면에서는 “국제신보여 재기

하라/애독자로부터 격려의 편지”라는 제목의 톱기사로 한 독자가 보낸 격려 편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부산 시내 대창동 1가 23에 거주하는 김영찬(金泳贊)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톱기사는 리드를 통해 김 씨 편지의 첫머리 즉 “삼가 귀사의 발전과 전 사원의 건투를 빌면서 복 바친 올분과 목 메인 심정으로 이 붓을 잡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받아야 하고 햇빛은 자만이 꺾어야 하는 이 비애, 이 서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신보여! 기어코 일어서라 우리들의 편에 서서 독재와 불의를 무찌르던 그날의 기백을 살려 신문을 발행하라”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 본문에서는 뒷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가난의 벗이 되고 피해 대중의 힘이 되어주던 국제신보가 같이 울게 되고 같이 참상을 당해야 하다니 아무리 억제하려 해도 억제할 수 없는 가난의 서러움이 터지고 맙니다.

하필이면 신문만을 가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고 힘이 되어준 국제신보에는 거듭되는 재난을 받아야 하다니…참으로 하느님도 무심하며 천지신명님마저 없는 자를 팔시하나 봅니다.

가난의 쓰라림에서도 그래도 가끔 보내주는 기사에 힘입으며 살아가는 약한자들의 벗인 국제가… 귀사에서 주최하는 야구 등의 행사 때면 하필 비가 오곤 하는 일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짓밟혀도 짓밟혀도 우리 민족이 한 하늘밑에서 마음을 놓고 사는날까지 어려운 난관을 참고 이겨 주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힘을 내셔서 속간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보』를 가난한 자의 벗이라고 평가하며 그 휴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속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독자들의 문의전화와 편지 그리고 직접 방문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현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독자들의 격려 편지가 접수되면 『국제신보』는 그 중 주요 사례들을 지면에 소개하고 있다. 4월 28일자 조간 3면을 보면 좌측에

7개 단에 걸친 박스 기사로 “아… 하늘이 다시 보인다”라는 제목과 “본보 속간에 각계서 격려문 답지”라는 부제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먼저 부산의 중고교 교원노조가 보낸 격려의 편지를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을 통하여 4월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제2공화국의 진정한 민주정치의 확립과 민족정기의 발양과 사회정화와 아울러 교육발전과 교직보호의 온갖 정의를 사회화시켜온 국제신보와 전사원이 만란을 무릅쓰고 속간하심은 오직 올바른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들의 섯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건투가 계속되기를 4월 25일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격려하오니 불사조의 감투를 갈원(渴願)하오며 겹치는 간난과 노고를 삼가 위문드립니다.

평소 『국제신보』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격려하고 있다. 특히 4월 25일의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서 격려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끈다. 그 격려의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4월 25일이면 『국제신보』가 아직 휴간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이다. 이때에 비공식적으로 『국제신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향신문』 보도(1961. 4. 29. 조간 3면)에 의하면 경남의 초중등교원노조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3,000여 명의 노조원들 1인당 1,000환씩의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은 4월 27일의 일이었다고 한다.

4월 28일자 조간의 같은 기사에서는 시민들의 격려 엽서도 소개하고 있다. 서구 초장동 소재 신생활연구회관의 김소진 씨가 보낸 엽서는 “국제신보는 우리 회원원의 애인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국제신보를 서로 뺏아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어 신문을 인쇄할 수 없었습니다. …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분투해 주십시오. 빨리 속간을 하여 어떠한 정당에도 재벌에도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은 인간의 신문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이 기사는 영남상고 3년생 안건식 군이 보낸 글의 주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편지는 “신문이 못 나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글자 그대로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참말이라니……신문 파는 아이들의 ‘국제신보’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사옥 게시판 앞에는 언제나 모여서 있던 가난한 군상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게시판 앞으로 맥없이 지나가기만 하더군요. 종업원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지난날 자유당 압제 아래서 ‘학생들에게 데모의 자유를 주라’고 외치던 그 신문이 없어지다니! 아무쪼록 분발해서 속간을 하시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라고 속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토로하였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4월 27일 회사를 찾아온 한 시민이 “가진 것은 500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신문 속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하면서 수줍게 호주머니를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부인은 돈 1000환을 내놓으며 “신문값을 선불하는 셈으로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사례들은 위의 <표 1>에서 4월 28일 조간에 소개된 무명씨와 최우순 씨의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4월 28일자 석간에서도 3면 중앙에 ‘국제신보 그 이름이여… 다시 한 번 불러보자’라는 제목으로 각계의 격려문을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보수국민학교 교사 이순영 씨가 성금 5000환을 보내며 격려 편지에서 ‘제 자신의 피땀의 대가이오니 적다 마시고 받아달라’는 사연을 소개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발행하는 교포신문 『동화신문』 사장 마재사(馬宰史) 씨가 ‘역경 속에서 신문을 구출한 사원 제위에 경의를 표하고 감투를 bind’는 전문과 함께 5만 환을 보낸 사실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전보문을 통해 격려한 사례들도 있었다. 『국제신보』 1961년 4월 29일 조간 3면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부산기독교방송은 ‘민중의 소리- 귀지의 속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격려문을 보냈다. 앞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기독교방송은 격려 전문과 함께 성금 2만 환도 보냈다.

조선일보사 편집국장 최석채는 ‘백절불굴의 투지로써 금권을 이겨내고 언론의 정도를 사수하는 귀사 사원 일동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는 전문을 보냈으며, 소설가 정비석은 ‘속간과 사원 일동의 건투를 축원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은행노조연합회 부산지구협의회는 ‘4·19의 공로자 국제신보여! 권력과 금력에 억압되지 말고 최후의 일각까지 분발하여 언론창달의 역군이 되라’는 내용을 성금 1만 원과 함께 전달하였다. 이밖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전통’과 ‘진해일보 사원 일동’ 명의의 격려 전문도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격려 편지와 전문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언론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도 했겠지만 당시 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국제신보』 지면에 소개된 시민들의 격려 편지를 보면 『국제신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게이트키퍼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당시는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상업적 이익보다는 사회의 공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신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3) 격려 방문

다음으로는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격려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격려 방문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신보』 4월 28일자 조건부터 1면 하단에 “속간축하인사차”라는 1단의 제목으로 방문자의 성명과 직업이나 소속만을 열거하였다. 격려 방문자들을 날짜별 및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기서도 앞의 성금 기탁자 직업 분류와 마찬가지로 군인과 검찰은 공무원에 포함시켰다. 일반 시민에는 소속이 표기되지 않고 이름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한의사, 교사, 여고 교장 등이 포함되었다. 문화예술계는 시인과 소설가, 평론가 등 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화가도 1분 포함되었다. 사회단체에는 은행 노조와 교원 노조, 부두 노조 등 노조 관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격려 방문자도 모두 6일에 걸쳐 122명에 이른다. 직업별로는 언론계가 31명으로서 전체의 25.4%를 차지하였다. 특히 보도된 첫날인 4월

표 3. 격려 방문자들의 직업별 분포

날짜	언론계	공무원	기업인	문화 예술계	정치인	사회 단체	시민	외국인	계
4,28 조간	20	2	-	2	-	1	1	-	26
4,28 석간	3	8	-	3	1	-	4	1	20
4,29 조간	2	6	2	-	2	5	-	-	17
4,29 석간	2	5	6	4	2	2	4	-	25
4,30 조간	3	1	1	-	1	-	3	-	9
5,1 석간	-	1	2	1	-	8	-	-	12
5,2 조간	-	1	2	-	-	4	-	-	7
5,2 석간	1	-	-	-	-	2	1	-	4
5,3 석간	-	-	1	1	-	-	-	-	2
계	31 (25.4)	24 (19.7)	14 (11.5)	11 (9.0)	6 (4.9)	22 (18.0)	13 (10.7)	1 (0.8)	122 (100.0)

28일 조간에 전체 언론인 격려 방문의 3분의 2에 이르는 20명의 명단이 소개되었다. 이는 부산에서 발행되던 『민주신보』의 최현태(崔鉉泰) 취재부장을 포함하여 7명이, 동양통신의 경남지사장 손정현(孫正鉉)과 서울 본사의 편집부장 김정석(金正錫)을 포함한 12인이 방문하였다. 1952년 부산에서 창간한 동양통신은 휴전 후 환도하여 서울에서 발행하고 있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630~631쪽). 경남지사장을 제외하면 12인이 서울에서 『국제신보』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부산일보』는 편집부장 이상우(李相佑)와 사회부 차장 이덕술(李德述) 2인이 방문하였으며(4. 28. 석간), 4월 30일 조간에는 역시 서울에서 발행하던 합동통신사(한국신문연구소, 1975, 618쪽)의 고흥상(高興祥) 상무 겸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수신부장과 경남지사장이 격려 방문한 사실이 소개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발행하던 통신사들이 간부를 중심으로 격려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언론계 다음으로는 공무원(24명, 19.7%)과 사회단체(22명, 18.0%)

가 많았으며, 기업인은 14명으로서 11.5%를 차지하였다. 공무원과 기업인, 사회단체는 대부분 부산의 관공서, 기업체나 사회단체 간부들이었다. 일반 시민도 13명으로서 10.7%를 차지하였다. 한편 외국인 사례가 1건 눈에 띄는데, 이는 부산 미국공보원장 제임스 E. 보일이 방문한 사례다.

이처럼 격려 방문한 사례는 일반 시민보다는 동업계인 언론인과 공무원, 기업인, 사회단체들이 많았다. 일부러 회사를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신문사와 일상적인 업무 관계가 있거나 언론인들과 인적 유대 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더 많았으며 일반 시민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61년 4월 24일부터 시작된 『국제신보』의 휴간 사태는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용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휴간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고 4월 27일자 석간부터 속간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신보』가 재정난 때문에 신문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지면의 사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 정·관계, 언론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서서 『국제신보』 돕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격려 성금과 편지, 방문 등의 형태로 5월초까지 지속되었다. 『국제신보』는 이 기간 중 자세한 성금의 내역과 격려 방문자, 격려 편지나 전문의 내용 등을 지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서론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평가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언론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바탕이 된다는 점이다. 『국제신보』 돕기 운동에서도 신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독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지면에 소개된 격려 편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인식의 바탕이 있었기에 신문을 휴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한 『국제신보』를 시민들이 나서서 도와주려 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한국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를 통해 보면 수용자들이 언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가지고 있던 때에는 언론을 도와주는 방향의 운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비판이나 불매운동 등 공격적 성격의 대응 양상이 나타났다(채백, 2005b).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수용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신문사를 도와주려 했던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평소 이 신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언론 수용자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언론의 구조나 내용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었다.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독자들이 신문사의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신문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선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경영난에 처한 신문사를 도와서 그 사회적 기능을 지속시키려는 시민들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용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점이었다. 앞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성금을 보낸 명단 중 48.3%가 일반 시민들이었으며, 7.9%가 사회단체였다는 점은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일반 시민이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부산의 한 시민에 의해서 시작되어 다수의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뒤를 이어 동참하였고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수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언론을 지지, 성원하는 형태로 전개된 언론 수용자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은 해당 신문이 이를 지면을 통해 알리고 성원을 호소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점차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문사가 이의 확산을 도모하더라도 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시민

의 자발적인 성금이 계기가 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하고 호소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확산된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도 일반 시민들의 신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바탕이 없이는 참여의 확산이 어려웠으리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1961년의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언론 수용자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해방 이후 수용자운동의 역사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보다 3년 앞선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을 그 효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시기상으로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 면에서 보더라도 수용자운동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있다. 윤리위원회법 반대 운동이 대부분 언론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후반부에 가서 전문가 단체와 대학생들이 지지를 선언하는 형태였다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시작부터 전개까지 일반 시민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개화기의 언론사에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에 대해 독자들이 성금과 격려 편지를 보냈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1903년 『황성신문』이, 그리고 1907년에 『제국신문』이 경영난으로 신문을 정간할 지경에 이르자 전국의 독자들이 격려 편지와 함께 의연금을 보냄으로써 신문들이 속간할 수 있었다(채백, 2005b, 29~42쪽).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도 개화기의 이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신문사를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신문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인 것이다.

또한 이 『국제신보』 돕기 운동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언론 현실도 그렇지만 언론의 역사 연구도 서울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 언론의 역사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부산에서 『국제신보』 돕기 운동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다른 지방의 언론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앞으로 지방 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하여 묻혀 있던 중요한 사례들을 발굴, 규명하여 서울만의 역사가 아니 보다 총체적인 언론의 역사를 구성해 갈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국제신문사(1997). 『국제신문오십년사』. 부산: 국제신문사.
- 김기태(1989). 『한국 언론 수용자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시청료 거부 운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태(1994). 한국의 언론 수용자운동. 한국언론연구원(엮음), 『한국의 언론 수용자운동』(132~244쪽).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김형두(1995). 『신문과 나의 반생』. 서울: 조선문학사.
- 부산일보사(1985). 『부산일보사사』. 부산: 부산일보사.
- 부산일보사(1996). 『부산일보50년사』. 부산: 부산일보사.
- 양승목(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93~146).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임영호(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성격 1985-1993.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227~264).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주동황 외(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채백(1998).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윤길), 『21세기 미디어산업의 전망』(269~318쪽). 서울: 한올아카데미.
- 채백(2002). 개화기의 언론 수용자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305~331.
- 채백(2003).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2호, 249~272.
- 채백(2005a). 일제 강점기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192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8호, 219~249.
- 채백(2005b). 『한국언론 수용자운동사』. 서울: 한나래.
- 한국신문연구소(1975). 『한국신문100년: 사료집』.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한국언론연구원(1994). 수용자운동 일지. 한국언론연구원(엮음), 『한국의 언론 수용자운동』(379~392).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경향신문』(『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 『국제신보』

『동아일보』(『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조선일보』(『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한국언론연표』. <http://gate.dbmedia.co.kr>

최초 투고일: 2012.06.27

논문 수정일: 2012.08.01

게재 확정일: 2012.08.03

Historical Origin of the Korean Audience Movemen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onation Campaign to Aid the *Kookje-sinbo* in 1961

Baek Cha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on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Korean audience movemen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Most related studies suggest that the audience movement in Korea originated from the movement against the Act of Press Ethics Committee in 1964. But this study analyzed a historical cases before that time from the viewpoint of audience movemen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is the donation campaign by readers to aid the *Kookje-sinbo* in Busan which could not help suspending publication because of a financial predicament in 1961. The campaign was originated by a ordinary citizen of Busan. It was reported by the *Kookje-sinbo* in the recovery edition on 27th April, 1961. Through an another article of that edition the newspaper appealed to readers for support and encouragement. This resulted in the spreading of the donation campaign.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ed the campaign were 89. The 48.9% of them were ordinary citizens, and the 7.9% were civic groups. This means that the campaign was initiated by ordinary citizens voluntarily and this campaign can be recognized as a audience moveme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audience movement after the liberation is not the movement against the Act of Press Ethics Committee in 1964, but the donation campaign by readers to aid the *Kookje-sinbo* in 1961.

KEY WORDS audience movement • media history • local media
• Busan • *Kookje-sinbo*